

Think the Green [ ]

KC그린홀딩스
제 137호 KC뉴스레터

KC GreenHoldings

제 137호 KC뉴스레터

2025년 3분기에 있었던
KC그린홀딩스와 관계사의 소식을 공유합니다.

- 발행일 : 2025년 10월
- 발행주관 : KC그린홀딩스 지속가능경영팀
- 문의/발간 : yuseung@green-kc.com

목차

커뮤니케이션 활동

- KC구성원 AI인식 설문조사 시행
- KC그린홀딩스, 임직원 야유회 개최
- KC그린홀딩스 2025 윤리강조기간 운영

기타

- [HR]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 비준 추진
- [건강] 카페인이 만든 수면부채
- [환경] 도시의 절벽, 비둘기의 서식지 변화

KC구성원 AI인식 설문조사 시행

KC그린홀딩스는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전 관계사를 대상으로 'AI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구성원의 AI 이해도와 활용 수준을 점검하고 그룹 특성에 맞는 교육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총 9개 관계사(생산·현장직 제외)에서 139명이 참여했으며, 설문은 △AI 인식 및 이해도, △AI 활용 경험, △AI 활용 확대 방안, △AI와 회사의 비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 구성원들은 AI를 창의적 도구보다는 데이터 분석이나 정보 제공 등 보조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향후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잠재력은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활용 경험은 제한적이었고, 다수가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6%가 'AI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4.1%는 '실무 중심 교육'을 선호했다. 특히 생성형 AI(ChatGPT, Gemini 등) 활용 교육과 데이터 분석·문서 작성 등 실습형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80% 이상이 "AI가 회사의 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인식했으며, 향후 KC가 준비해야 할 과제로는 △내부 인력의 AI 역량 강화(61.2%) △기존 사업의 AI 접목(56.5%) △AI 기반 신규 사업 발굴(33.1%) 등이 꼽혔다.

KC그린홀딩스는 이번 설문을 통해 구성원들의 AI 인식 수준과 학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① 생성형 AI 활용 교육 → ②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역량 강화 → ③ 업무 자동화 분야로의 확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 인식 차원을 넘어, 구성원 개개인의 AI 학습 수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과 디지털 혁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커뮤니케이션 활동

KC구성원 AI인식 설문조사 시행

KC그린홀딩스, 임직원 야유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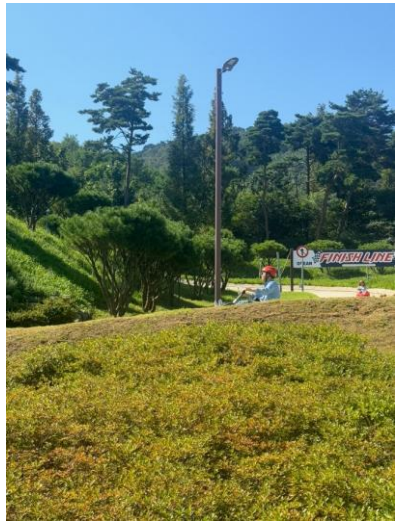
KC그린홀딩스 윤리강조기간 운영

기타

KC그린홀딩스, 임직원 야유회 개최





KC그린홀딩스는 지난 9월 11일, 임직원 간 소통과 재충전의 시간을 위해 임직원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워크숍이나 교육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구성원 간 교류를 확대하고 조직의 유대감과 긍정적 분위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액티비티 체험과 미디어 아트를 관람하며 업무에서 벗어나 리프레시의 시간을 보냈다. 이어진 저녁 자리에서는 임원진이 함께 참여해 회사의 현황과 향후 방향성에 관해 소통하며 내부 신뢰와 유대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지속가능경영팀은 “이번 야유회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구성원 간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다양한 교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

KC그린홀딩스 2025 윤리강조기간 운영

<직장 내 괴롭힘 OX퀴즈>

<KC 윤리위반 신고>

KC그린홀딩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윤리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윤리강조기간은 각 사의 윤리강령 개정과 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0월에는 '임직원의 기본윤리'를 주제로 상호 존중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실제 위반 사례를 그룹 공지를 통해 공유한다. 11월에는 윤리신고기구의 홍보와 더불어 KC네트워크 전체를 대상으로 윤리위반 설문조사를 실시해 각 사의 윤리경영 수준을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 12월은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주제로, 임직원과 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 문화를 확립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KC그린홀딩스는 이번 윤리강조기간을 통해 내부 신고제도를 '고발'이 아닌 건강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예방과 치료의 과정으로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그룹공지 게시판을 통해 윤리위반 사례와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임직원 참여형 윤리 OX퀴즈 이벤트를 함께 운영하며 구성원의 윤리의식 향상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끝)

[HR]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 비준 추진

지난 8월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며, 이 중에는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을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폭력 및 괴롭힘 협약(Violence and Harassment Convention, 2019)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리 불리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와 제76조의 3이 제정되었고, 2021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쳤다. 해당 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와 조사 기간 중 신고자 보호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 제재,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유지, 신고인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의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특히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ILO 제190호 협약은 2019년 국제노동총회에서 채택된 가장 최신의 국제 규범으로, 그 뿌리는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 있다. 필라델피아 선언이 인간 존엄을 노동의 핵심 가치로 주장했다면, 협약은 이를 구체화해 폭력과 괴롭힘을 인권침해 또는 남용으로 규정한다. 협약 제1조는 폭력과 괴롭힘을 '용납할 수 없는 일련의 행동과 관행, 또는 그 위협'으로 정의하며, 단 한 번의 사건이라도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신체적·심리적·성적·경제적 피해를 모두 포함하며, 가해자의 의도나 지위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중심 접근을 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직장 내 상하관계 뿐 아니라 동료 간, 고객·환자·승객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도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

협약은 회원국이 예방-보호-집행-구제-지침-교육-인식 제고를 아우르는 포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제9조는 사용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를 법제화하도록 하고, △근로자와 대표자의 참여에 기반한 정책 수립, △위험 진단과 예방조치 시행, △폭력·괴롭힘을 산업안전보건의 심리사회적 위험으로 고려하는 체계를 강조한다.

ILO 제190호 협약의 비준은 단순히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한국이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문제를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 보호와 분쟁 해결 절차를 내실화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KC 역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폭력 및 괴롭힘 없는 건강한 직장생활의 기본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끝)

[건강] 카페인이 만든 수면부채



직장인에게 커피는 하루 일과의 일부가 되었다. 아침에는 집중을 위해, 점심 후에는 졸음을 이기기 위해, 회의 전에는 기분 전환을 위해 자연스럽게 커피를 찾는다. 그러나 잦은 커피 섭취는 피로를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피로를 누적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카페인은 피로 신호를 전달하는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해 일시적인 각성 상태를 만든다. 이러한 각성 작용을 통해 집중력과 활력을 높여주는데 섭취 시점과 양에 따라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4~6시간으로, 오후 3시 이후에 마신 커피는 밤 9시에도 체내 절반 가량이 남아 있다. 이 잔류 카페인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고, 다음 날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를 초래한다. 즉, 깨어 있기 위해 마신 커피가 더 큰 피로로 돌아오는 '수면부채'를 만드는 셈이다.

직장인들의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하루 권장량(400mg)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에스프레소 한 잔에 약 100mg, 아메리카노 두 잔이면 이미 절반을 채운다. 여기에 초콜릿, 녹차, 에너지음료 등에 포함된 카페인까지 더하면 일상 속 섭취량은 훨씬 많아진다.

건강한 각성 효과를 유지하려면 오전 중 두 잔 이내로 섭취를 제한하고, 오후에는 디카페인 커피나 보리차, 허브티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식후 즉시 커피를 마시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식사 후 30분 이상 간격을 두는 습관이 바람직하다. 짧은 각성을 위해 마신 커피가 장기적인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적절한 섭취와 휴식이 병행될 때 비로소 커피는 일상의 활력을 더하는 음료가 될 것이다. (끝)

커뮤니케이션활동

기타

국제노동기구 제190호 협약 비준 추진

카페인이 만든 수면부채

도시의 절벽, 비둘기의 서식지 변화

[환경] 도시의 절벽, 비둘기의 서식지 변화



비둘기는 본래 바다 절벽이나 산악의 바위 지대에 둥지를 짓는 새로, 높고 좁은 틈을 선호하며 천적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찾아 생활해 왔다. 그러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건물과 교량이 절벽과 유사한 형태를 이루게 되었고 비둘기는 절벽 대신 건물 외벽·교량·간판 아래 등 인공 구조물을 새로운 서식지로 선택하게 되었다.

비둘기의 도시 적응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도시 비둘기의 원종인 바위비둘기는 약 5천 년 전부터 인간이 통신과 식용, 애완 목적 등으로 사육하며 가축화되어 왔다. 인간과의 장기적 공생 관계 속에서 비둘기는 인간의 생활권에 익숙해졌고 도시의 건물 구조는 비둘기에게 과거 절벽의 형태와 기능을 대체할 만큼 유사한 환경을 제공했다.

문제는 도시의 인공생태계가 비둘기의 생존에는 유리하지만 생태 균형에는 불리한 환경이라는 점이다. 풍부한 음식물 쓰레기와 온난한 미기후는 개체 수 급증을 초래했고 이는 곧 건축물 오염, 위생 문제, 질병 전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둘기 분변에는 곰팡이균과 기생충이 서식할 수 있어, 도시 위생 관리의 새로운 과제로 지적된다.

비둘기의 도시 적응은 인간이 만든 환경에 자연이 재조정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도시화는 생태계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생태를 인위적으로 재구성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인간 중심의 환경이 곧 타 생명에게 새로운 서식지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시는 더 이상 인간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종이 공존하는 복합 생태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끝)


KC GreenHoldings